朝鮮日報

十四日夕刊

發行所 朝鮮日報社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金炯元

西北水害續報

新上市危機一髮

금진강물이뎨방을넘어드러온다

십이일 새벽한시쯤부터 금진강(金津江)수가일시에십여척이나 증수되여연안뎨방(沿岸堤防)을 넘으려함으로 시민들은 즉시뎨방보호대를 조직하야 소방대와 합력하야 죽기를한하고 보호한 결과 요행넘지는 안엇스나각일각으로위태하더라(십이일귀)

水國化

세평야가 물나라로

십이일아츰부터금진강연안일대(金津江沿岸一帶)는물바다로수국을 일우엇는데 그면안에잇는 춘류평야와 문상평야와 귀림평야도물로홍수의권란장(職觀場)이되야 농산물손해가 자못만타는데 그손해총액은 아즉알수업다고(신상)

洪原에도洪水

농사피해불소

함남홍원(咸南洪原)디방에는지난십일밤부터십일일밤까지비가 퍼붓다가 겨우하늘은 개엿스나 하천연변의 농작물은 피해가적지안타더라(홍원)

鴨綠江沿岸水害

경비뎐화와뎐주가물속에

십삼일밤 압록강(鴨綠江)의후창군(厚昌郡)하류연안은이십칠척이나 증수되엿고 자성군(慈城郡)은십삼일부터더욱비가퍼부어 아즉도그치지안어 이십여척이증수되엿스며 만포위원(滿浦渭原)간의경비뎐화선(警備電話線)은 뎐주가 물속에무치어당분간회복될가망이업다는데 손해뎡도는막대할모양인바 머개큰곳을소개하건대

一、위원경찰주재디부근은압록강증수삼십오척에달하야손해가막대하며

一、안만도로(安滿道路)는전부두절되엿스며

一、자동차선로는안만선(安滿線) 맹북선(孟北線) 량의선(兩義線)은통하지못하며

一、만포강계(滿浦江界)간과희천(熙川)간뎐화불통

一、박천귀성백탄(博川龜城白灘)간은 감수중인데 인마의교통은간신히한다더라(십사일평북발뎐)

赤壁江增水와 黃州水害

침수가옥이 수백호이다

황주 적벽강수는 각각으로증수되야 십이일오후 다섯시경에는 십여척에 달하야 또다시인심이 흉흉케 되엿는데 적벽강물은무섭게도돌어 한시간에 일척이상식증수됨으로 천번봄보다 더위험함으로 성남리(城南里)를 망라하야 침수될만한 동리에서는 가장집물을 수습하기에 골몰중인데 먼저번홍수에 간신히고개를든농작물은 이번폭우로 인하야적벽강 연안 일대는 전멸될듯하며 너무나갑작이 쏘다지는비로인하야하천(河川)이 막히여황주읍내 뒤월산아래 영창골노남문외까지의 시가에는 침수가옥이 수백호에 달하야 일시는대소동을이루엇스며 아즉까지계속하야 비는쏘다지고 강물은각각으로증수됨으로 압흐로 몃시간만계속하면 크게위험상태에 싸지리라더라(십이일황주)

大同江漂流人

련광뎡아래서구조

십이일 오후열한시반경 대동강(大同江)의 물결이각일각으로 늘어갈때에 상류로부터김모(金某)라는사람한아이『예목』우에몸을싯고 떠나려오다가 구사일생으로간신이련광정(練光亭)아래에서구조되엿다더라(평양)

大同江普通江增水

每時間에一尺式

일반부민은수년전수해련상

긔보한바와가티 련삼일간의 호우로날미아마보통강(普通江)일대는이미 물바다로화하여 버리고대동강(大同江)은한시간에한자의속도를 가지고 각일각증수 중인데 일반부민은 수년전수해 당시의 참담한뎟긔억을 머리속에상상하면서 련락부절로 대동강의증수상태를경계하려강안에 집중하는 중인바 십이일 오후네시까지 평양측후소에도착한 상류각디방의 우량보고를 들어보건대 평양디방은 십이일 정오까지 매일평에 두섬덧말의 비가왓고 십이일 오전열시까지의 각디우량은 다음과갓다더라

◇寧遠 一二〇粍

◇德川 一七五粍

◇安州 一八五粍

◇平北熙川 二〇五粍

이가티계속되는 호우에 대하야 측후소원은 말하되 『북지나(北支那)방면에잇는 저긔압(低氣壓)과상해(上海)방면의 저긔압이모다황해(黃海)방면에나타난 까닭이라더라(십이일귀)

平南各地雨量

또한평남(平南)각디방의십일일밤까지 총우량은 다음과갓더라

◇平原 一五九粍

◇安州 一四〇粍

◇順川 二六一粍

平原에水害

한재후수재

지난십일오후령시경부터평원군 디방에는 비가오기시작하야 동십이일 오전령시경에는 폭우가쏘다저서영유천(永柔川)에물이넘처 피해가옥이 다섯이오기타 평원각처에도 농사에 손해가만타더라(평원)

咸興災民千八百

피해액은구만여원이다

함흥(咸興)수해에대하야십사일오전에함남도지사(咸南知事)로부터 경무국(警務局)에 도착한 보고에 의지하면 전괴가옥일백칠호, 반괴가옥일백칠호, 침수가옥삼천칠백팔십팔호이라는데그손해는 대개약구만원 이라하며 리재민은일천팔백명이라더라

鐵道各線

◇咸鏡線 함경선 본궁(本宮)서호진(西湖津) 간은금번홍수로렬도가떠어져교통이두절되엿던바 금십사일 오후다섯시부터개통될모양이라더라

◇黃海線 사리원(沙里院)진천(鎭川)간은십삼일사리원발 뎨십삼렬차(第十三列車)로전부 개통되엿다더라

◇上海線 상해선은십사일부터개통되엿다더라

◇京義線 경의선맹중리(孟中里)영미(嶺美)간에잇는영택천(英澤川)다리는금번홍수로 문허져 교통이전부 두절되엿던바십삼일 오후구시까지 공사가전부복구되야 즉시개통되엿다더라

市內下水溝整理

백이십오만원의예산으로 시내여러곳에하수공사를 五年間繼續事業으로

경성부토목과(土木課)에서는시내하수구뎡리(下水溝整理)에대하야금년부터시작하야일천구백삼십년까지 약오년간 계획으로 일백이십오만원의 예산을 세워 총독부에 신청중인바 금년대수재로인하야 시내에 이러난다대한피해는 그원인이 하수구불완전에 인한것임으로 하로라도빨리 그개수공사에 착수코저그예산안중에서 금년도공사비로 십륙만원을 인용하야위선 아래와가튼 팔개소의 공사를시작할모양인데 총독부의 허가가나리면 곳지명입찰(指名入札)에부치여 계약뎨결을한후는 즉시착수하야 륙십일내에 준공할예뎡이라더라

場所	所番地間	距離
貫鐵洞	八八 八四番地間	三二一間
北米倉町	一四三 一四六 同	三二一間
南米倉町	三六 一七 同	四七間
西小門町	三五二 九四 同	六〇間
同	一九 九一 同	七八間
孝悌洞	二六 九一 同	一四〇間
淸進洞	六四 二八 同	六五間
體府洞	八一 八九 同	五七間

早大敎授來講

실업문데로

조선신문사(朝鮮新聞社)에서는 동경 조도뎐대학교수(東京早稻田大學敎授) 북택신차랑(北澤新次郞)씨를 청하야오는이십일오후네시부터 시내장곡천뎡(長谷川町)공회당(公會堂)에서사상문데 강연을 개최할터이라는데 신사회의건설과사회교육(新社會建設과社會敎育)이란 연뎨로 페인 실업문데(失業問題)에 대하야 사회생활의 경험이오 사회뎡책가인 씨의독특한 강연을할터이라하며 입장료는 오십전식이라더라

天道敎地日紀念

금십사일은텬도교 해월신사(海月神師)가도통바든날이라하야 텬도교에서는 디일(地日)로 긔념하는터임으로 금일오전부터 경운동텬도교당(慶雲洞天道敎堂)에서수천교도가모혀서 텬도념사(念天念師)와 강도로성대한긔념식이 잇섯더라

鐘路의公市場

련합판매로 팔게될듯하다

경성부공설종로일용품시장(京城府公設鐘路日用品市場)은 지난칠월말일 경성부협의회(協議會)에서 폐지하기로결뎡하고도당국에 폐지허가원을 뎨출하엿는데 이소문을들은 동시장내지뎡상인들은 동시장을 부에서 폐지하면 시장상인끼리 련합판매소를조직하야 업무를 계속하려고부권업계(勸業係)에 비공식으로교섭을하야 량해를어든후 동시장 긔디(基地)의소유자인와도대리인(鍋島代理人)모뎐진웅(牟田眞雄)씨와 긔디대차(基地貸借)에 대하야 교섭중이라는데 이에대하야 부권업과장은 말하기를 종로일용품시장 폐지는 도당국에뎨출하엿슴으로 허가되는대로 즉시 폐지하겟슴니다 폐지후지뎡상인끼리 련합판매를 하겟다고 뎡식의교섭은업섯스나 만일련합판매조합을 조직하고 영업을계속한다하면 할수잇는데까지는 원조하겟스며지금건물(建物)은 게뎐된지혹은 연고자에 세를줄의향이라고말하더라

大邱午砲를 汽笛으로變更

성적만조흐면 곳실행할예뎡

대구에서는지금까지월견산(月見山)에서오포를 노와낫열두시를가르치게되엿는바대구부에서는경비상관계로 긔뎍을 울리고저하야 요새매일시험을 하는중인데 성적만조흐면 곳실행할터이라더라(대구)

總辭職風波後 校費審議

십륙인출석 네명만불참

학교비평의원(學校費評議員)총사직문데는그럭저럭일단락을고하고 십삼일오후두시에는 뎨일회의실에서 열게되엿는데 위원 주김용하(金容夏)송재영(宋在榮)리요문(李容汶)박해돈(朴海暾)사씨만출석치못하고 그외십륙인이 출석하야회의를 진행케되엿는데 학교비부과액 사뎡에 대하야는 평의회에서 낫낫치재산됴사를 할수업슴으로 부령됴뎡액을 그대로통과식히고 만약 거긔에대하야 혹재산됴사가 불완전하야 부담이 과중한분은 발표후십일내로 경성부로 통지를하면 평의회에서는 그통지에 의하야다시 자세한됴사를 할터이라더라

不參四人은

사직여부불명

평의원십륙인이모혀부학교비심의회를 진행하엿다함은 별항보도와갓거니와금번출석하지 아니한평의원중에는혹은려행중이고 혹은병중이고 또는사직을 한이도잇다는데 그러나 사면은아즉 그대로 할의사로 출석치아니한 정식으로 뎨출이 되지아니하엿다더라

日人과朝鮮人‖

衛生施設의差異

부당국이대평양의면목을 위하야최대한도로공평히

平壤朝鮮人生活裏面(三)

또다시 붓대를돌리어 그들의위생상태(衛生狀態)를 한번살펴보자 먼저그들조선인 경영의병원(病院)은 몃곳이나되며 또한의사(醫師) 산파(産婆) 가튼것은몃사람이나 되는가

◇私立醫院 一五 ▲醫師 二一 ▲齒醫師 二 ▲產婆五 ▲看護婦五 ▲種痘施術員 二三(昨年度現在)

미약하나마 이것이 그들사회의 위생긔관(衛生機關)이라고도말할수잇는 것이다 그러나그들

조선인의 좀더나흔 완전한위생뎍생활은 좀더충실한 위생긔관의시설을 요구하며 부당국(府當局)의공평된 행정(行政)을바라게되엿다 보라! 저들일본인의 일흠한바 소위 구시가(舊市街)라는조선인의부락(部落)시설은 도로(道路)의 수리(修理)와 하수구(下水溝)의 치수(治水) 상태가엇지 되여잇는가 금수강산을자랑하는 평양시가 한모퉁이에는 산비탈언덕길이 의연히남아잇고 이곳저곳 좁은골목에는 진부된 하수(下水)의 악취를발하고 미암아 사실상오물을 거러지안흘수업게되엿다 물론 일반뎍으로 위생사상이 보급되지 못함에도 한가지 리유가잇지마는 첫재는 하수구에 대한수리 공사가잘되지못한 까닭이라한다

되지못한 까닭이라한다

거의말끗마다대평양(大平壤)을 내세우고 금수강산을 자랑하는 부당국자로잇서 이가티 더러운 시가디를 그대로보존 하는것은 참으로대평양의면목을손상함이라하겟다 비록 그것이 구시가요 조선인의생활부락일망정으로지 평양을위주할것이라 이가티 부당국의 행정은 최대한도의공평을위주할것이다 이가티 더러운시가디에 무진 쉬한 주택살림을일우고잇는조선인들은비록의복이 청신하고 몸뎡이가깨끗하다할지라도 자긔주택의 부근을 도라볼데에는 수시로 닥처오는 무서운 병마(病魔)의 위협을아니밧들수업나 그러나 다음에나 타나는각종뎐염병(傳染病)환자 통계수자를살펴보면도저 그들의 위생상태는

가이업는

환경(環境)에 비하야 어느정도까지 발달되엿다고말할수잇다 그들에게는 그동영의목욕탕(沐浴湯)이 네곳이나되고 집압헤 대동강(大同江)이잇고고자림(箕子林)모란대(牧丹臺)의『아츰산보』가잇다 대동강에 시커진의복과 몸뎡이는아울러희고새조하며 아츰산보에 드러마신 새로운공긔(空氣)는정신을맑게하고원긔를북도든다 아―그러나구뎡이넘는동개천은그어느날에나?(계속)

思想講演次로 今日入京한兩演士

불일간사상강연을열터 中西伊之助君、奧무메오女史

북풍회(北風會) 등 네사상단톄합동위원회 주최로 조선에서근래에드문 사상대강연을열고자 일본사회주의자 중서이지조(中西伊之助)씨와 오(奧)무메오 량씨를초대하엿다함은 긔보와 갓거니와 량씨는 금일에 경성에내리어불일간강연을 열터인데량씨의 과거략력을 소개하야동지의 긴분을새롭게하고저한다

푸로文學과

직접운동에 만흔공로가잇다

중서이지조씨는 어려서 부터로동자생활을 하면서공부를 하엿다명치사십년에는중앙대학(中央大學)에입학하엿다가부득이한사정으로 중도에퇴학하고 다시국민영학회영문과(國民英學會英文科)에입학하야졸업한후 그해사십이년에 조선에 건너와서평양일보(平壤日報)와및평양일일신문사(平壤日日新聞社)의 긔자로 입사한후 조선로동자를 위하야격렬한언론을쓰다가필화(筆禍)로인하야 텰창생활 까지 한일도잇엇다 그후

대정륙년

에는동경시사신보사(東京時事新報社)에 또긔자로 입사하엿섯고 동팔년에는일본교통로동조합(日本交通勞動組合)을 창립하고그리사장에 취임한 일이잇섯스며 그후구년에는동경시뎐종업원(東京市電從業員) 파업사건의선동자로또 텰창생활을 하엿섯다 그후십년에는개조사(改造社)에입사하야 『혁토(赫土)에싹나는것』『여등(汝等)의배후(背後)에서』등부희병위(奧喜兵衛)의 사(死)』등장편소설과 『푸로』문학에만은공헌이잇섯다

◇가상사년청◇

중서이지조군

女流思想家로

해방운동에진력

오무메오녀사는 명치이십팔년에 복정시(福井市)에서 출생 하엿는데 그곳에서보통교육을밧고 이어서 동경목백(東京目白)에 잇는 일본녀자대학(日本女子大學)에 입학하야대정오년에동교를 졸업한후 다시 공생활의비참을 톄험하기위하야 동경부사방적공장(東京富士紡績工場)에드러가

오래동안

실제로동에종사하엿스며 대정팔년에평총(平塚)라조녀사들과 함씌신부인협회(新婦人協會)를 창립 하야 부인의 정치뎍(政治的) 사회뎍(社會的)해방운동(解放運動)에 진력하엿다 그후 대정십이년부터는 동지와가티직업부인사(職業婦人社)를 조직하고부인과로동(婦人과勞働)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야 부인의경제뎍해방운동(經濟的解放運動)에방금만은 노력을하는 중이며 일면으로는정치연구회(政治硏究會)에

중앙위원

(中央委員)이되여 무산정당(無產政黨)의 조직준비에만은노력을하는중이라더라

◇가상사류녀◇

오무메오녀사

兩氏出迎

별항보도한바와가티 사개단톄합동위원회(四個團體合同委員會)에서중서(中西)씨와오(奧)녀사를 초대하야 사회문데 강연을 개최할터인데 『오』녀사는 이미금일 오전에입경하엿고 중서(中西)씨는 금일 오후일곱시 경성착렬차로 입경하리라는데 권긔단톄에서는 중서씨를마지려 김약수(金若水)씨와 김찬(金燦)씨가 영등포(永登浦)까지 출영하기로 하엿다더라

路上에打人

가해자본뎡서에

시내 신뎡(新町)사번디김인석(金仁錫)(三六)은십삼일오후아홉시경에 신뎡이십일번디 등선각(登仙閣)압길에서시내서사헌뎡(西四軒町)일백륙십칠번디사는 양보수(梁寶洙)와서로말다툼을 하다가 양보수를 란타하야 전신에이십사개소의 타박상을 당하게하엿다는데 가해자 김인석은 즉시본뎡경찰서에 톄포되어방금엄중취됴중이라더라

十四頭승량이가

畜牛二頭를咬殺

동민은매우념려중이다

지나간 사일오후일곱시 경에경북봉화군 소천면두음리(奉化郡小川面斗音里) 뒤산에는승량이열네마리가 나타나서리수봉(李壽峰)외한 사람의소두머리를무러죽인것을 동리사람이 발견하고곳뒤를 쏘찻스나 산중으로 다라낫다는데 소관주재소 에서는 동민과가티 지금까지 추격중인 바동민들은 전전긍긍 하는중이라더라

◇李氏의特志 고양군한지면행당리(高陽郡漢芝面杏堂里)사는 리춘식(李春植)씨는자긔동리에서 이번수해에 집을일흔 오십여호리재민에게 수일권에 백미한말과 현금일원식 난호아주엇다한다

新院巡查非行과

동아분국장필화

황해도재령군신원시(黃海道載寧郡新院市)에잇는 동업동아일보신원분국장정찬순(東亞日報新院分局長鄭燦淳)(二八)씨는 지난구일 재령경찰서(載寧警察署)에압송되엿는바이제그내용을알어보면권긔신원시에서약이십리가량되는 어느촌 주재소순사조원(駐在所巡查趙原)이란자가 지난봄에 그곳에잇는어느부인에게비행을하고또다시다른녀인에게 수행을하려다가 거절하는바람에 그녀자와 남편을향하야로따리엇든일이 잇섯다하며 또는그자가그후에남의음식을외상으로먹고갑흘내지아니한일이 잇서 동아일보지방란평(七月卄八日)에 긔재하얏던일이 잇는바 이자는이것을 명예훼손죄라고 고소를뎨긔하야 드듸여김씨는압송되엿다더라(해주)

殺人強盜公判

십오일오전에

경성디방법원에서암성(岩城)검사로부터사형(死刑)의구형을바든살인강도김장경(殺人強盜金長庚)의판결언도는십오일오전 이동법원뎨칠호법뎡에서열릴터이라더라

京城圖書館에

칠천원보조 디방비에서

경긔도지사(京畿道知事)로부터 칠월십이일부로서 시내 인사동(仁寺洞)에 잇는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 대표자리범승(李範昇)씨에게십사년도경비로서칠천원을보조하엿다더라

平壤人口

일년동안에천여명증가

평양부의인구가 나날이 격증하여간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조선사람에게만 한하야 작년일년도의 생사률(生死率)을 비교하야보건대 다음에 나타난수자와 가티 남자(男子)가 매월평균사십사인이증가되고녀자(女子)는 매월평균사십오인이증가되엿더라(평양)

	生產	死亡	增加
男	一、二三六	六〇〇	五三八
女	一、三二八	七八三	五五五

(昨年一年中調)

또다시이것을달(月)로비교하여보면 일년열두달중에 죽고낫는 것이뎨일만키로는다음과가티사월(四月)중이뎨일이라더라

生產 (四月中) 男一二九 女一〇九

死亡 男七一 女六九

國勢調查와

宣傳飛行

선전지수만장을뿌리게된다

오는십월일날 전조선에 일제히 국세됴사(國勢調查)를시행하는데 선전비행을 행하기로 결뎡되얏는데 그날자는 다음과갓다

▲平壤 十七日午前九時부터十時까지 宣傳비라二萬三千枚

▲大邱 同午前七時頃 一萬八千枚

▲京城 同午前八時半 四萬枚

▲開城 同午前九時半 一萬二千枚

京城青年聯合에

무산청년가맹

시내재동(齋洞)경성무산청년회(京城無產青年會)에서는 지난팔일 경성청년련합회(京城青年聯合會)에 가맹신청(加盟申請)을 하엿던바 동련합회 집행위원회에서는 이래심의한결과 가맹식히기로결뎡하엿다더라

살무사에물려

小兒慘死

나무하다가물려죽엇다

영덕군병곡면신평동(盈德郡柄谷面新坪洞)삼백륙십구번디에사는김양원(金陽源)의이남래을(來乙)(一〇)은지나간삼일오전열시경에산에올나나무하다가살무사에게 물리여 동오후열한시에 죽엇다더라(대구)

主人寢室에

단도들고침입

일본군마현(群馬縣)출생인 정상영치(井上英治)(二二)는 사오일권에 명치뎡(明治町)일뎡목 칠십번디 황목호장(荒木好藏)의 집에고용으로드러잇는중 십사일 오전네시에 약한자가량되는식칼을 가지고 주인부부가 잠드러잇는실에 침입 하야금 삼십원과 순금딸륵 시계와기타 여러가지 물품을 절취하야가지고도주하다가 본뎡경찰서원에게발견톄포되엿다더라

◇集會◇

▲第一高普學校夏期總會 는십륙일오전열시 동대문밧 영도사에서 연다는데 회비는일원식 당일지참하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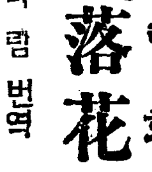
종명자

▲한강과락동강연안에 큰수해가 잇슨지한달도못되야 장마의 독수는 감을든서북디방의 민심을 놀래인다▲그런데커번락동강수해가가장비참할때에 리재민의 가장비참한 생활을보고 발광되야▲그즉시일본동경에가서가등수상을 방문하고 불상한리재민에대한 면담을 구하얏스나▲문간에서 거절을당하고 그즉시 궁성량폐하를 배알하고 수해의 참상을권하라다가▲드듸여궁성경관에게잡히어취됴를바친후칠삼일송택(松澤) 병원에 수용된사이잇다▲그는부산의숫장사삼산(杉山)의이십세된 꼿가튼딸 절자(節子)인데 원래녀류사상가이엇다고▲참비참한 수해가 나흔일종의비극!

落花(락화)

봄바람 번역

一六五



로선생과백수는 부억으로 들어갓다 여긔는즉 토굴의련정인데 마루人장을 뎌들어노코사밧이가튼것을 너저분하게 늘어노앗섯다 이것은즉굴속을 충분히 차저본증거이엇다 머리를 숙이어서 다시굴속을들여다본즉 속도안보이는 흥린통만 하나가득한냄새가 낫다 로선생과 백수는아조실망이되야 긔운이 하나도업시서로얼굴만 마조보앗다 그엽헤서비호는불엇다 『장관 엇더케하십닛가?』 이소리에로선생은 비로소 정신이나는듯이『무얼 아즉실망할것업다 이러케굴속에물이 잇는 것부터 위선다를수업는 증거다 낫가 일동이잘보아두엇다가 부잡히거든 대답하여다고 악한의소굴은 커별장이나 …으로해서별장…』

이러케말하고 로선생은 그중에두사람을 식히어 권상옥의집으로 몰려갓다 또한 명부인것가티고요하여가는 부억아궁이에는 가득게불을피여노앗스며그엽헤는독한 개의 남비가잇고 그남비는독한 뜻한술을부어노앗섯다이것으로 권상옥이가 조와하는 조로를 한눌라고 한인듯하며 이때한것을그대로 남겨두고 또는물도마지안코 그대로도망하엿다 그안에잇는 마루에는 세상을모르고 누어자는자가 하나잇섯다 그것은즉 일권에선경이 로소희사원으로 차리고 왓슨 애술한 면구를주기로 약속한 그하인이엇다 하인까지이러회진 아마주인은 죽은송장과가티 취하야나자버렷스리라하고 방으로 가본즉 과연그는 책상우에비할게를 뎍버리고 큰매(大)자로 자바지서 래일아츰까지도 깨지못할것가탓다 이러라하면 한시간이나 두시간 안에는 도망할수업스리라 생각하고 별장을다녀서 도라오는길에 포박하리라는 작정으로그중에한사람으로 하여금 파수를세워노코 이번에는 별장으로달려갓다

그별장은 먼저도 말한바와가티 여긔서멀지아니한 산비탈에 잇서서 그집에서 잡목우로조사스나 길을찻기는 용이하엿다 잠간동안에 그압헤 당도하야로선생은 부하를세패로 난우어서두사람은 뒤문으로 가게하고한사람은 압문에 파수를세워노코후에 자긔는백수와 비호두사람을 다리고 초인종을눌럿다 그러나 잠것슬줄로알앗던문은 잠긴것이아니오 조금잡아당긔는 바람에 제절로수루루 열리엇다 『아! 여긔도벌서도망하엿나보다』하고 안으로들어가서 방방이뒤져본즉여긔저긔에 여러가지물건이 허터저잇서서 행장을수습한 흔적이 잇섯다 이것은 분명히 도망한증거이엇다 백수는 잠간동안에 집안속삿삿이 뒤져본후에 로선생의 엽으로와서 『장관아모도 업습니다마는 앗가지 잇던것은 사실입니다부억에잇는 그릇을보닛가 아츰에 먹던것을 그대로두엇스닛간』 하고말하엿다 비호도 입을열어서『그럿치아니라장관 여긔서 살던자가족히 미인을죽이자을시다 그것은 이상자로서 알수잇슴니다』하고부인상자를 들어오며『보십시오미인에게잇는것과 똑갓슴니다 아니 가튼물건입니다』 『이집에잇든자가 누구라고하는것은 그것보다도 이것으로써 더 알수잇네 장관보십시오 휴지속에이런것이 잇슴니다』하고백수는봉투하나를 내여 밀엇다 그속에편지는 업섯스나 겉에는 『섹그니별장에서황차옥씨』라고 써잇섯다 로선생도 놀래며『이야말로 정말귀중한 증거다』 『아마 청소마의일홈일줄로 암니다』하고 백수는대답하엿다 『그래 나는경찰부장에게서들엇는데 청소마의 본명이황차옥이란다』 『이로써청소마가 앗가까지여긔잇다가 총총히 다라낫다는증거도 들어나고 또는그가틈을마아 집과 신호를하엿다는 것도알앗스닛가 인제는 증거에를충분하것이 업겟지오』 백수의 이말과가티 증거에는 부족이업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청소마는어데로갓는가

먹렁구리 자작자급

(58) 참외가가

(一) 거지가금시에 후록코트신사

(二) 굴근놈으로골려서 참외가한접

(三) 잠간먹은것이 일흔다섯개

(四) 도야지라는벌명듯고 노발대발

◇天氣豫報◇

◇溫度 十四日正午 九三、六

◇比較 十三日最高 八四、〇

◇日出 前五時四八

◇日入 後七時二一

時評

轉禍爲福의 覺悟

×

漢江、洛東江沿岸에 大洪水가 氾濫한 結果 酸鼻의 慘劇이 續出되야 沈痛한 慘狀이 오히려 復興되지 못한 今日에 又復西北地方—淸川江、大同江沿岸과 城川江流域에 亘한 大水災의 警報를 接하게 되니 吾人은 진실로 形言키 어려운 心痛을 다시금 늣기게 되다 아즉 報道가 區區함으로 그 實狀을 捕捉하지 못하고 따러 具體的으로 評論하기는 困難하나 大體로 綜合하여 보면 그 災害의 程度가 尋常치 아니함을 알 수 잇다

×

重疊하야 닥쳐오는 災害는 우리의 凋殘한 運命을 더욱 催促하는 듯 하다 再昨年 關西地方의 大水災, 昨年의 曠古未曾有의 旱災, 今年中南北에 荐至한 大水害는 人爲的 禍因으로 말미아머 破滅狀態에 싸우리의 經濟生活을 加速的으로 진威脅할 因果關係를 가지고 잇는 것은 多言을 要할 必要가 업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서운 生命力의 쌔침 性能이 잇다 그리고 相扶相助하야서 團結의 偉力을 發揮할만한 性能이 잇다 逆襲하여 오는 禍機를 비틀어 轉하야 最後의 活路를 開拓하는 機會를 製作함이 當面에 覺悟를 要할 點이다

×

民族이나 個人을 勿論하고 비로부터 活動과 奮發이 잇는 者에게 숙길 업는 滅亡이 잇지 아니하엿다 轉禍爲福의 意氣! 相互扶助의 團結的 活動! 이것으로 우리의 運命開拓의 指針을 作할 것인뎌

白丁、勞働者

×

本紙의 地方報道에 依하건대 慶北醴泉地方에서 衡平分社의 紀念式場에 當地勞農會員인 勞働者가 多數히 闖入하야 一大紛糾가 惹起되엿다 한다 아즉 그 衝突에 對한 바 委曲한 事情이 如何한지 그것을 詳細히 了解치 못하는 吾人은 是非를 가리고자 안코 다만 勞働者와 白丁階級과의 關係에 對하야 一言코자 한다

×

被壓伏階級이란 槪念下에 包括될 勞働者와 白丁의 反目은 곳 自家의 互相反目이라 할 수 잇다 勿論 녯날에 白丁階級은 勞働者階級以下에 處하야 最下層階級으로서 慘酷한 壓迫을 被한 것이 事實이지마는 人間이란 槪念下에서 種의 差別觀類의 優劣感을 떠나게 된 現代人間의 正義的 觀念은 다시 말하면 生存的 鬪爭을 爲하야 奮起한 被壓伏階級은 不自然하게 生活上에 壓迫과 搾取를 强要하는 制度를 向하야 戰鬪力을 集中함이 當然한 바이 아닌가 陳腐한 觀念으로써 同一한 被壓伏階級인 白丁을 勞働者가 迫害하는 것은 勞働者自體의 自侮이니 戒懼할 바이라 한다

佛西聯合軍의 合同
모로코戰線에서

(쌜도十二日發) 『모로코』에 對한 佛、西聯合軍最初의 合同은 大成功을 이루엇는데 佛軍『푸레덴헤크』將軍은 西班牙軍의 共同策戰에 對하야 西軍司令官『라컨』氏에게 感謝한 意를 發하얏더라

佛司令官의 對西軍感謝

(쌜도十二日發) 西班牙公報에 依하면 『모로코』에서의 佛、西兩國의 共同的軍事行動의 第一期는 成功裡에 終了하얏다 하며 尙且『아쎄헤』를 攻擊目標로 하야 佛軍一中隊의 配置를 完了한 後 佛軍司令官은 西班牙司令官에 向하야 西班牙軍의 協力에 對한 謝意를 表하얏더라

모로코에 最後通牒
講和條件의 詳細說明
不應하면 共同攻擊開始

(巴里十三日發) 八月末을 期하야 佛蘭西는 『모로코』叛徒首領 『압드엘크림』氏에게 最後의 通牒을 送하야 佛蘭西及西班牙의 講和條件을 詳細說明하고 且此에 此回答期를 限하야 通告할 터이며 『모로코』叛徒로 對에 應하야 滿足을 與치 아니하면 佛蘭西及西班牙兩國軍隊는 『베탄』元帥指揮下에 大規模의 討伐을 開始할 터이더라

國際聯盟二大議案
九月二日『제네바』에서 開議

(나우엔十三日發) 國際聯盟理事會는 九月二日『제네바』에 開催할 터인대 二大議事는 『모슬』問題와 『딴지씨히』自由市區域確定問題이라더라

佛銀罷業益益蔓延
政府側强制的調停意向

(巴里十二日發) 銀行從業員의 同盟罷業은 其後終息할 模樣이 보이지 아니하고 漸次地方의 小銀行에까지 蔓延하얏스니 이로 말미아마 目下募集中의 公債賣出에도 影響을 及하야 大藏省은 同公債應募期日의 九月五日을 十九日까지 延期하게 되고 따라서 重大視하게 되엿다 政府에서는 十二日閣議에서 同問題를 討議하엿는 바 勞働相 『도다룸』氏는 右爭議에 對하야 强制的調停을 行할 法案을 提出할 意嚮이 잇다더라

對米戰債
白國提案의 前途

(쌜도十二日發) 對米戰時債務支拂에 對한 白耳義의 第一提案은 아마 承認不可能하리라 思惟되며 그리고 兩國委員의 討議가 再開하게 되리라고 觀測되더라

獨逸憲法發布
六週年紀念

(쌜도十二日發) 十一日의 獨逸『와이멜』의 憲法發布六週年紀念日은 全獨逸의 一般에 亘하야 祝賀會를 開하얏더라

瑞、西仲裁裁判
調印權限附與

(나우엔十三日發) 瑞西聯邦參議員은 『듀-빈』大使 『멘고태』氏에 對하야 西班牙의 仲裁裁判條約에 調印할 權限을 附與하엿다더라

急行列車衝突
死傷十數名

(巴里十三日發) 『아미안』에서 巴里『푸론』間急行列車가 衝突하야 死者十三名負傷者五十名을 出하엿더라

一週飛行家
아라시얄氏

(쌜도十二日發) 歐洲一週飛行의 『아라시얄』氏는 機關士 『로ㅣ리』氏同乘 十一日莫斯科에 到着하엿더라

空中水雷試驗
英陸軍의 新計劃

(나우엔十三日發) 英國陸軍當局은 『헤르츠』電波의 作用으로 地上으로부터 操縱할 만한 新空中水雷의 試驗을 行하는 中이라더라

『아문젠』大佐一行의 北極探險船은 北西伯利의 氷上에 갓처잇섯든바 今回겨우 自由로 航行하게 되엿슴으로 遂히 探險을 繼續하더라

北極探險繼續
아문젠大佐一行

(外電十二日發) 北極探險家

歐洲訪問飛機
降雨로 飛行中止

(오-니코라이에프스크十三日發) 訪歐機二機는 도쿄『아친스크』地方降雨로 因하야 出發을 停止하엿는대 此降雨는 어느때나 갈는지 露西亞人外지도 全혀 豫想치 못하더라

露機의 海關訪問

(北京十三日發) 北京山海關飛行의 露西亞機三臺는 十二日午前六時南苑을 出發하야 十一時에 無事히 目的地에 着하엿더라

駐英中公使館昇格
最初大使는 顏惠慶氏?
中國政府當局者間의 協議

(北京十三日發) 駐英中國公使館을 大使館으로 昇格하야 顏惠慶氏를 最初의 大使로 任命코자 하는 相議가 政府當局者間에 開始되엿더라

排日熱은 學校에도
外人經營에는 斷不登校
容易히 鎭靜될 希望이 업다

(北京十一日發) 中國各地에 發生한 排外熱은 遂히 外人經營의 宗敎學校에 波及하야 其學生等은 同盟하야 九日의 新學期에 登校치 말자 主張하야 宣傳하는 中임으로 英國을 中心으로 하는 中國各地의 宗敎當局은 最近此의 善後策에 就하야 協議中인대 目下의 形勢로는 到底히 鎭靜할 希望이 업슴으로 今後約一個年間 排外熱이 冷却하기까지는 學校를 閉鎖하던지 그는 將來三個年間中國의 基督敎敎育長의 經營에 一任하던지에 就하야 協議中에 目下의 形勢로는 中國에 잇는 宗敎學校의 前途에 對하야 悲觀되야 外人側에서는 頗히 困況에 잇더라

馮玉祥의 武器擴充
追擊砲百門과 飛機卅臺

(天津十一日發) 馮玉祥氏는 獨逸國으로부터 自働車二十臺及武器彈藥을 四回에 亘하야 輸入하얏던바 今回更히 代表를 伊太利에 派遣하야 伊太利商人과 追擊砲百門、飛行機三十臺輸入의 契約을 締結하고 迫擊砲二十門을 受取하야 張家口에 輸送하얏더라

奉派의 飛行機充實
今回更히 二十臺購入

(奉天十三日發) 張學良은 上海奉天間飛行機送計劃下에 新히 飛行機二十臺를 買入하얏는데 實은 奉天派飛行隊의 充實을 圖할 目的이라더라

唐昭儀氏
外交委員任命?

(北京十一日發) 顧維鈞氏는 駐露大使에 任命되고 王大燮氏는 委員長이 된 結果 外交委員에 缺員이 生한지라 廣東代表孫科氏를 委員에 選擧하야 南京連絡의 實을 擧하자는 說이 잇섯스나 孫科氏는 個人의 事情에 依하야 任命키 不可能함으로 其代에 孫科氏와 關係가 깁흔 唐昭儀氏가 外交委員의 一人에 任命되리라더라

航空輸送計劃
奉天、上海間

(奉天電) 東三省航空處에서는 奉天上海間의 旅客貨物定期輸送을 計劃하는 中인데 何時頃實現될는지는 不明하더라

日人紡績에 又頭痛
罷業은 解決해도 繰業은 不能
英工部局의 送電拒絶로

(上海十三日發) 日本人紡績의 罷業을 解決하기 爲하야 日本紡績으로부터 動力電氣의 配給을 工部局에 要求함에 對하야 十三日의 工部局參事會는 當然히 此問題를 討議할 豫定이엿는데 參事會에서는 아즉 會社에 送電할 時期가 達하지 못하얏다는 理由로 問題를 삼지 아니한 結果 送電은 當分不可能하게 되야 紡績罷業은 解決된다 하여도 繰業開始는 當分不可能하게 될러이며 또한 工部局參事會가 問題로 삼지 안은 裏面에는 英國側에서 其英國關係의 罷業終了까지 送電中止를 運動하엿슴으로 電氣課의 配電不可能의 決議가 더엿고 又參事會에도 影響이 밋처 送電拒絶된 것이더라

祐大紡績損害
百萬弗以上

(天津十三日發) 祐大紡績工場關係者等은 現場을 視察하엿는데 機械의 一部와 建物의 外廓만 餘할 뿐이오 全部掠奪하여 가서 殘據와 如하야 損害는 百萬弗以上에 達하겟다더라

哈市에 新造船所
張作霖氏計劃

(奉天十三日發) 張作霖氏는 哈爾賓戊通公司의 松花江航行權을 買收하얏는데 今回又哈爾賓에 造船所를 設할 計劃을 樹立하고 五十萬元을 爲先支出하기로 決定하얏더라

露中會議
近近開催實現

(奉天電) 露中會議는 近近奉天에서 開催하게 되야 露中會議秘書八名參議八名을 任命하고 會辦으로는 鄭謙氏가 辭任하얏슴으로 其後任으로는 李垣氏로 任命하게 되바 李氏는 旣히 張作霖氏와 各種의 協議를 遂하얏더라

外務新規要求

(東京電) 外務省十五年度豫算은 十六日까지에는 大藏省에 送附될 터인바 新規要求의 重要한 것은

一、商務職員의 增加及事務充實에 關한 經費四十八萬圓
一、海外航路擴張調査費七萬圓
一、河內?其他領事館新設費六千七萬圓
一、在外靑務敎育獎勵費의 增加十二萬圓
一、移民保護獎勵費三十三萬圓
一、在外公使館新設及修繕費三十萬圓
合計二百萬圓

定例事務官會

(東京電) 十三日定例事務官會議에서 左의 件을 決定하얏더라

一、外國飛行機의 來航에 關한 歡迎은 陸軍에 關係가 잇는 것은 陸海軍兩省에서 分行하고 其他는 遞信省에서 行할 事
二、無線電信會社株의 申込은 約十一倍에 達하얏슴으로 此割當은 實行委員會에서 決行할 事
三、朝鮮水害罹災에 各官廳은 應分의 義捐金을 集하야 拓殖局長에 一任하야 送金케 할 事

失業者救濟策
地方起債許可

(東京電) 失業者의 增加는 얼마아니되야 重大한 結果를 招致할는지도 모른다 하야 內務省社會局에서는 此의 方策에 關하야 調査研究한 結果 爲先地方起債의 許可를 容易히 하야 地方團體가 各種事業을 이르키게 하고자 일즉부터 地方局을 經由하야 大藏省과 協議한 結果 大藏省의 諒解가 成立되야 此等地方債의 認可에 關하야 十三日若槻內相은 聲明書를 發表하엿더라

小學教員年俸
增額키로 決定

(東京電) 文部省에서는 小學校敎員年功加俸의 增額에 關한 請求書의 激增에 鑑하야 小學敎育의 改善과 相俟하야 從來의 意嚮으로 現行年功加俸支給率을 平均率보다 二割乃至五割의 範圍에서 增加할 方針으로 遂히 調査에 着手하기로 決定하엿더라

日露利權交涉
時日의 切迫

(東京電) 日露利權交涉은 前月該委員의 面會가 잇슨 後 繼續하야 日本側에서 利權交涉討議의 基礎事項을 露國側에 提出한 대로 至今까지는 露國側의 回答이 업고 具體的討議에 入할 日字까지 不明하야 十一月十五日이라는 期限까지는 겨우 三個月밧게 아니 남어 滿足한 交涉을 行할 수 잇슬가 多少疑問이라 此는 當業者의 內訌으로 代表의 出發이 느진 結果오 露國側은 旣히 好意를 表示하기는 하나 有利한 結果는 엇지 못하리라 關係側에서는 憂慮中이더라

稅制大綱決定
內務大藏兩省聯合會에서

(東京電) 十三日內務、大藏兩省聯合稅制調査幹事會에서 府縣稅、營業稅、雜種稅에 適當한 整理를 行할 事 其內容은 七月末協調決裂의 閣議에서 若槻內相이 私案으로 說明한 것과 主旨方針에 잇서서 何等變함이 업스나 正式으로 幹事會에 提出한 原案은 部分的으로 多少의 相違가 잇서서 大要國稅整理案과 同樣의 方針과 綱領으로 된 바 其槪要는 左와 如하더라

◇府縣稅의 部

一、地租營業稅附加稅는 本稅의 減收에 依하야 附加稅도 減收된 結果가 되나 右는 附加稅의 稅率을 引上하야 減收를 生케 하지 아니할 事
一、地租免稅點以下의 土地에 對하야는 現行附加稅額의 程度에 特別地稅를 附加할 事
一、戶別割은 此를 廢止할 事. 此의 歲入缺陷은 家屋稅新設에 依하야 補塡할 外에 所得稅附加稅率의 引上을 行할 事

家屋稅를 創設하야 當分此를 配付稅로 하야 直接國府縣稅와 戶數를 標準으로 하야 各市町村에 配付하고 家屋의 賃貸價格은 市町村會에 附議하야 此를 定하고 其稅額은 適當히 定할 事

◇市町村稅의 部

國稅附加稅率의 引上은 府縣稅整理案과 同一함
地租免稅點以下의 土地에 對하야는 現行附加稅額의 限度에서 附加稅를 課하고 新設한 家屋稅에 對하야 附加稅를 課할 事
戶別割은 市町村稅로 하야 創設한 其附加標準等은 現行戶數割規則에 依할지나 資力査定標準中의 住家坪數는 此를 削除할 事
義務敎育費國庫負擔金의 增額은 稅制整理의 財源에 充當할 事

地方稅制整理도
=大綱決定

(東京電) 地方稅制整理에 關한 稅制調査幹事會는 十三日午前九時부터 藏相官邸에 開會, 午後는 內務、大藏聯合幹事會를 開하고 其大綱에 就하야 審議決定하고 午後七時三十分散會하얏는대 稅制整理案은 數回의 幹事會에 依하야 其大綱이 旣히 決定되얏슴으로 其細目을 急速協議決定하야 來十九日閣議에는 上程하야 通過를 期하기로 하얏더라

日本對中策은 如何
참으로 誠意가 업다
頭本氏의 米政策非難과 中國勞働局長의 反駁演說

(마사추셋츠洲위리암스타운는十三日發) 中國勞働局長鍾博士는 今回外交官의 經歷도 有함으로 當地에 잇는 政治硏究學會에서 演說을 하엿는 바 頭本元貞氏가 亞米利加의 外交政策을 非難함에 對하야 反駁하야 『亞米利加의 政策은 防禦的이요 攻擊的은 아니다 況侵略的은 아니다』라고 指摘하엿스며 또 中國에 對한 日本의 態度는 誠意가 업다고 反駁하엿더라

日銀利下希望
銀行은 過金症에 呻吟
企業은 利子高로 靜止

日銀金利第二次引下에 對하야는 一次利下後財界의 一宿題가 되얏섯고 憲政會單獨內閣出現後 現實說이 一層緊하야 株式界는 此에 刺戟되야 幾圻의 上放을 出現하얏든바 昨日東京電에 依하면 只今形便으로는 日銀利下는 反히 空景氣를 煽揚하야 投機思想을 助長할 憂가 有하다 하야 大藏當局의 意嚮은 此를 不可라 함으로 當分實現은 無望하리라고 觀測하는 바 今에 京城財界重要當業者의 意見을 綜合하면 大槪如下한 事情에 依하야 日銀利下를 要望하는 便이 有力하더라

▲金融界 方今銀行業者의 積滯로 市內의 業蹟이 堅實한 銀行일수록 此가 甚한 狀態이며 某某市內本店銀行과 如한 것은 從來에는 夏季後米穀資金의 出廻가 多한 關係上 此資金을 鮮銀에 仰하얏다가 一月頃부터 此의 廻收를 受하야 鮮銀에 償還하고 若干의 預金을 殘留하면 又直히 此를 借入하야 年中鮮銀에 對한 借越이 繼續되든 現狀인데 今年에 入하야는 一月以降引續하야 鮮銀에 對한 預入金으로 此로 因하야 本店銀行은 一般預金者에게 支拂하는 利率과 鮮銀으로부터 受하는 利子만 喰하고 잇는 現狀임으로 만일 日銀의 利下가 實現되고 一般銀行利子와 預金利率이 低下되야 事業界를 繁昌케 하기 前에는 此現狀을 緩和할 수 업다는 處地에서 利下實現을 希望함이 아니라 今日과 如히 財界의 整理도 만히 進行되야 直히 投機熱을 煽揚할 憂慮도 그리 重大視할 것이 아니라 함에 在하고

▲事業界 此亦前記한 理由와 如히 今日과 가튼 高利로는 利廻의 不良으로 何等企業에도 着手할 수 업는 形便이라 하야 一日이라도 速히 低利의 出現을 切望하는 狀態인데 如斯한 觀測은 一部의 浮虛實業家보다도 堅實한 方面에서 擡頭되는 모양이오 今日의 現狀으로는 實로도 不景氣는 益益深刻하야 殆히 財界는 靜止狀態의 觀을 呈하더라

鮮臺兩銀
發行稅低減

(東京電) 政府는 臺銀並鮮銀의 整理遂行의 一助로 하야 其發行하는 銀行券의 制限外發行稅를 現行의 七分으로부터 最低率五分으로 引下할 意嚮을 有한 바 此가 何時부터 實施될 것인가 하면 其時期에 就하야는 [illegible] 케 될 模樣인데 此特別外發行稅의 引下가 兩行業態에 及하는 影響은 銀行券의 發行의 多寡에 依하야 決할 것으로 銀行券의 流通하는 鮮滿乃至臺灣의 財界繁閑에 依하야 豫斷을 許치 못할 것이나 今日까지의 實際로 보아 發行稅가 最多額으로 納附된 時는 一年約百五十萬圓前後에 達上하얏스나 普通은 兩行共히 年額約七十萬圓前後라 함으로 만일 今後로 從來普通時의 發行高를 見한다면 發行稅二分의 引下에 依한 銀行側의 利得은 年額約二十萬圓前後가 될 것이더라

水害對策決議
都硏總會經過

京城都市計劃研究會에서는 十二日午後三時부터 商議會議室에서 總會를 開催, 委員會의 結果를 報告하고 左의 決議文을 可決하며 實行委員六名(李完用、釘本藤次郞、小川勝平、田中半四郞、大村百藏、元應常)을 選擧하야 總督府에 陳情하기로 하얏더라

◇決議文

京城都市計劃研究會는 今般大洪水에 絶大한 脅威를 感한지라 將來此等大慘禍를 免할 方策을 熟慮하야 漢江에 對한 根本的治水策과 京城을 中心으로 하는 應急防水施設等에 就하야 左의 希望成案을 得하얏다

一、漢江에 對한 根本治水策
(一)上流貯水式을 採用하야 洪水의 緩和調節을 圖하고 同時에 灌漑의 便과 水力電氣의 廉價供給에 資할 事
(二)河身의 整理, 淺灘의 掘鑿分流等河水疏通의 施設을 할 事
(三)防水堤의 施設은 灌漑其他의 諸施設과 愼重한 連絡을 取하야 互相扞格이 無하기를 期할 事
(四)流域森林의 治山砂防等의 施設及獎勵를 徹底히 할 事

二、應急防水施設
(一)龍山及永登浦의 防水堤를 完全히 復興할 事
(二)鐵道橋及人道橋中間의 築堤를 鐵橋로 改築하야 河水의 疏通을 計할 事
(三)龍山에 잇는 高低地排水施設을 完成할 事
(四)二村洞에 住居를 禁하고 現住民에게 代地를 交付하야 定居의 途를 講할 事

根本策確立請願

=十三日午後三時부터 商議內에 開催되얏던 都市計劃研究會總會에서 治水問題에 關한 決議案을 可決한 것은 旣報와 如하거니와 請願委員副會長李完用、元應常、釘本藤次郞、田中半四郞、大村百藏、佐藤虎次郞六氏는 十四日午前十時總督府로 齋藤總督을 訪問하고 請願書及旣報한 決議文을 提出하야 治水의 根本策確立에 就하야 請願한 바가 잇섯다

石炭消費로 본 主要都市의 工業
總消費三二〇三六五噸中 工業用이 一六二一九五噸
工業消費로는 釜山이 第一位

全朝鮮主要都市의 一個年石炭消費高는 卅二萬三百六十五噸(煉炭을 除함)으로 其中工業用石炭은 十六萬二千百九十五噸인데 市別消費量으로는 京城十三萬噸이 第一位를 占하얏스나 工業用으로는 釜山이 第一位이다 石炭의 消費量은 其都市의 實力을 知할 參考가 될 것은 勿論인바 工業用石炭의 消費量으로는 京城이 釜山에 一籌를 讓한 것은 此의 事實을 如實히 示한 것이다 昨年度各主要都市別消費額은 左와 如하더라

◇京城 總消費量一三〇、〇〇〇噸中工業用五七、五四六噸 ▲內別=電氣三二、二九九噸、金屬九、六六九噸、餘炭製造五六五三噸、印刷一、九一九噸、化學工學一、七九一噸、窯業一、二八〇噸、專賣局一、〇八三噸、製絲一、〇七九噸、釀造七八六噸、製藥五七〇噸、製鹽四八〇噸、織物一二三噸、其他八一四

◇釜山 總消費量九二、五〇〇噸中(鐵道用炭을除함)工業用六八、五〇〇噸 ▲內譯 瓦斯會社一一、〇〇〇噸、硬質陶器七、〇〇〇噸、各硝子工場一一、五〇〇噸、釀造五〇〇、코-크스工場二、〇〇〇噸、朝鮮製鹽八、五〇〇噸、朝紡六〇〇噸、牧島各製鹽一、七〇〇噸、各煉瓦工場一、〇〇〇噸、漁業二、〇〇〇噸、土木局出張所一、五〇〇噸

◇馬山 總消費量六、六三〇噸 ▲內別…工業電氣會社、製鹽、釀造二、一六〇噸、鐵道、軍隊、自家用四、四七〇噸

◇大邱 總消費量二五、四六〇噸、工業用 ▲內別…大興電氣三、五〇〇噸、製絲四、五〇〇噸、專賣支局二、〇〇〇噸、及慶東線六、五六六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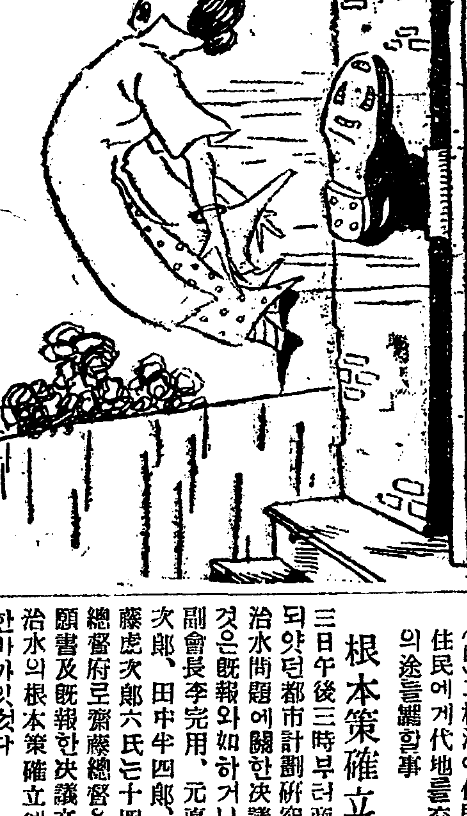
◇木浦 總消費量一七、五九五噸에 工業用(木浦電氣、棉花工場、織物工場)三、〇〇〇噸、船舶供給五、七〇〇噸、光州方面에 六、五〇〇噸、其他二〇〇噸

◇群山 總消費量六、七二〇噸에 工業用四、六一八噸 ▲內別…葛原冷藏一、〇〇〇噸、群山電氣一、二五八噸、精米二〇〇噸、各瓦工場八〇〇噸、刑務所煉瓦工場一八五噸

◇仁川 總經費量一七、五二〇噸(外鐵道用一〇、三〇〇噸)에 工業用七、五〇〇噸 ▲內譯…製鹽三、〇〇〇噸、釀造二、八〇〇噸、鐵工煉瓦六〇〇噸、硝子工場一〇〇噸、其他一〇〇〇噸

◇淸津 總消費量三、九〇〇噸에 工業用一、〇〇〇噸(中西田鐵工所六〇〇噸)

◇鎭南浦 總消費量二二、五二〇噸에 工業用五、六九〇噸(朝鮮鑛山、朝鮮燒酒、朝鮮無煙、瓦、煉瓦各會社工場、土木工營社、釀造(京城府商議調査)



鐵筆寫眞 이만하면 볼려업겟지 投稿歡迎

人事消息

▲安在鶴氏 留學次로 十四日午後十時發日本經由獨逸에
▲秋元俊吉氏(東京英文報知社 애드버-타이서 記者) 朝鮮漫遊次入京天眞樓

八面鋒

○ 모로코獨立軍은 佛、西의 聯合講和條件을 一言之下에 拒絶하엿다 壯哉! 快哉!

○ 解放戰線에 立한 리푸族獨立軍이어, 決勝斷外지 突進하라!

○ 某地方에서는 勞農會員이 衡平社員을 迫害하엿다! 못엔 勞農會員이다 自己서름을 알엇드면 남의 서름도 알엇슬 걸

○ 西北地方에도 水災이 낫다, 이것을 禍不單行이라 할가? 轉禍爲福도 잇건만

商況 十四日前場

仁川期米

止價比較表

	昨後止	今前止	比較
當限	一	一	一
中限	一	一	一
先限	四〇、六九	四〇、六〇	九低

	當限	中限	先限
一節	一	四〇、四〇	四〇、三三
二節	一	四〇、四五	四〇、六一
三節	一	一	四〇、五九
四節	一	一	四〇、五五
五節	一	四〇、五〇	四〇、五一
六節	一	四〇、四八	四〇、五四
七節	一	一	四〇、五九
八節	一	四〇、四五	四〇、五九
九節	一	一	四〇、五九
十節	一	一	四〇、六〇

前場小落

昨後場阪地四十一圓八十八錢止와 共히 四十圓六十九錢에 場을 止하엿섯다 今朝兩地形勢는 又復軟弱에 傾하야 阪地初付四十一圓六十一錢인 二十七丁의 反落을 據하고 四十圓五十錢인 十七丁低히 場을 始한 後 阪地二節六十七錢인 六丁小高와 共히 六十錢外지 跳返하더니 阪地五節六十一錢의 低落을 報하자 五十一錢外지 下押하엿다 然而低價에는 硬派의 買漁로 結局阪止六十九錢을 入하야 六十錢에 場을 止하니 高低의 差는 九丁이며 阪仁의 鞘는 百九丁이더라

賣繫는 時期尙早

寸退尺進의 步調로 阪地는 四十二圓臺, 當地는 四十一圓臺를 突破한 그 形勢가 俄然一服하야 兩地共히 五十餘丁을 反落하엿다 要컨대 近日의 天氣好順과 濁米의 潤澤又는 政府의 拂下가 賣氣를 助長하는 同時에 新規賣物이 演出하기 때문에 一段落을 告한 바이나 그러나 아즉도 時期尙早일 것이며 따라서 局勢도 永續的低落으로 觀測할 수 업슬 것이다 一日正米의 實勢가 賣方針을 許하지 아니할 터더러 압흐로 橫在한 天候를 또한 無視할 수 업스며 또는 現下의 農況을 據할지라도 日本은 一時冷氣가 稻의 發育을 侵害하야 順氣를 憂懼하는 가운데에도 그다지 樂觀을 呈하지 못하는 貌樣이며 朝鮮地方은 客月의 洪水로 漢江洛東江一帶의 作物만 全滅狀態이엇슴으로 오히려 不幸中幸이라 하엿스나 昨今에 入하야 西鮮地方의 水害가 不少하야 全鮮的으로 被害가 多할 모양이며 本年도 豐作의 可望이 無하며 從하야 實米의 低落을 望키 難하다고

阪仁買氣優勢

阪地市場은 三期共히 上長의 取組를 示하야 玄人筋은 擧皆買氣에 偏傾하고 地方來客素人筋은 農作物의 良好함을 背景으로 하야 賣繫에 熱中하는 現狀이며 當地亦素人筋의 賣物이 多하야 千餘丁의 大瓦落을 期待하는 貌樣이나 局勢는 어느 程度가지 低落하는 때는 반다시 立長筋의 買拾으로 結局反騰을 招致하야 凶作米의 本性을 失치 안이하는 바 果然賣方이 受米하기로 決行하는 時는 渡方의 狼狽를 促하는 同時에 一時反撥을 演하겟슴으로 賣方은 勇進的態度로 戰線을 延할 수 업스며 따러서 買方은 一層堅固한 兩盤을 呈하리라고

各地期米

前場

	初付	大引
東京	四三、四〇	四三、二八
兵庫	四一、六八	四一、七五
下關	四一、二〇	四一、一九
桑名	四一、三一	四一、四一

大阪期米

前場

	寄	止
當	四二、五一	四二、四二
中	四二、五二	四二、四二
一節	四一、六一	六節 四一、六四
二節	四一、六七	七節 四一、六四
三節	四一、六七	八節 四一、六一
四節	四一、六五	九節 四一、六〇
五節	四一、六三	十節 四一、六九

仁川正米釘着

仁川正米는 期米와 一張一弛을 下落하고 約一週間을 算하야 釘着不振하는 中인데 標準價는 左記와 如하더라

圓(支)米三等	四二、四〇
同 四等	四二、〇〇
無檢査米	三九、六〇
一等精白米	四七、八〇
在來正租	一二、八圓
改良正租	一三、〇圓

株式 十四日

前場寄買關係

▲京取 五〇(賣)吉見成濟(買)村田 ▲大新 五〇〇(賣)洪田中定剛 新田(買)白井金秀南白樂市川 ▲仁新 四〇(賣)田中(買)成濟 ▲金剛 一〇

前場諸株步調

▲京取 二二、一七— ▲大新 八六、二〇—三〇—四〇—五〇— ▲仁新 三三、〇〇— ▲朝紡 二七、一〇— ▲金剛 三〇、八〇—

京取市場

京取短期取引

	初付	大引	高價	低價
京取	一	一	二二、一七	一
鐘新	一	一	一	一
大新	八六、二〇	八六、五〇	八六、五〇	八六、二〇
仁新	三三、〇	一	[illegible]	一
朝紡	一	一	一	一
金剛	一	三〇、八〇	一	一

前場軟弱
場面不氣乘

京取 一〇低 仁新 三〇低
大新 六〇低 朝紡 七〇低
(昨日終價와 前場終價比較)

高價는 一段落

昨後場에 大新이 波瀾商狀으로 下溢이 되던 機先今朝阪電은 大新阪付가 八十六圓六十六圓二十錢으로 續軟에 當地도 八十六圓二十錢으로 七十錢低히 場을 始한 後阪步不落에 低價買物이 持續되어 四五十錢으로 三十錢에 大引되어 續押으로 高價는 一段落이엇스며 鐘新도 米棉絲低로 阪地續弱에 氣配弱하얏스나 積極的賣叩도 업서 遂不成이엇더라

相場轉換乎
頭打貌樣

昂騰步調를 巡한 以來 日銀二次利下今週實現說外지 高唱하며 押目買人氣旺盛으로 買方은 利喰後買直하는 等 자못 前途樂觀되며 大新의 九十圓臺出現도 거의 疑心치 아니하든 터이엇스나 昨日來日銀利下延引說이 有力해짐을 따러 相場은 下押되나 人氣는 押目買도 別로 업슬 뿐 아니라 反히 相場轉換說外지 唱키에 至하야 今朝도 氣乘이 薄하며 頭打商狀으로 보는 便이 만어졋스니 金融背景貿易外國爲替財界活況等도 一巡買된 關係上 彈力性을 增하야 跳躍하리라고 外지는 信키 難한 듯 하더라

京取不動

大新과 步調를 同一히 하야 二十二圓臺에 下押되든 京取는 今朝大新續押에도 不拘하고 不賣不買로 二十二圓十七錢에 五十의 商內가 잇서 不動으로 形勢觀望이엇더라

短期雜株閑散

朝紡은 二十七圓十錢에 小口가 잇서 不味이엇스며 仁新은 三十三圓丁으로 小驅되어 四十의 手合이 잇섯고 金剛은 短期上場後 처음으로 三十圓八十錢에 十枚小口가 잇섯더라

仲買店員表彰

京取仲買組合에서는 今十四日午後一時市場開場紀念式後에 左記勤續仲買店員의 表彰이 잇섯더라

▲一年勤續者
△金潤秀仲買店員 金潤昊
△白井仲買店員 寺崎直人
△田中仲買店員 山本源作

▲三年勤續者
△金應龍仲買店員 尹秉旭
△金潤秀仲買店員 金永植
△南仲買店員 紺辰孝次郞

▲五年勤續者
△白井仲買店員 日下剛一郞

大阪長期株式

株名	前付	前止
鐘紡	二六五八〇	二六五八〇
同新	一二七〇〇	一二七二〇
大株	九九四〇	九九三〇
同新	八七五〇	八七八〇
郵船	七一三〇	七一二〇
同新	一	一
商船	四六五〇	一
同新	一	一
日清	一一一三〇	一一一三〇
東紡	一六六三〇	一六六〇〇
大株中引		九九一〇
大株新		八七七〇

大阪短期株式

前場	初付	大引
鐘新	一二五九〇	一二五九〇
大新	八六六〇	八六八〇

大阪短期步調

前場
▲大新 八六六〇—七〇—八〇—八〇—八〇
▲鐘新 一二五九〇—七〇—八〇

海外經濟 十四日

倫敦銀塊	三三片八分一	
英米爲替	四弗八五仙三分一	三分一高
米棉	二圓四十錢低	
印棉	二十錢高	
스틸株	一二一弗	八分一低
아나콘다株	四二弗	二分一高
紐育銀塊	六九仙八分七	

金融 十四日

朝鮮銀行券

發行高	九一、三六八、四一、〇二
正貨準備高	三七、四〇七、六六三、八〇
保證準備高	五三、九六〇、七七三、一五

綿絲 十四日

大阪三品

月限	前付	前止
八月限	三三三八〇	三三三八六〇
九月限	三三三四六〇	三三三五〇〇
十月限	三三二〇一〇	三三二〇六〇
十一月限	三三二七一〇	三三二七五〇
十二月限	三三二四〇〇	三三二四一〇
一月限	三三二三一〇	三三二三〇〇
二月限	三三二三八〇	三三二三〇〇

橫濱生絲

	前付	前止
當限	一九七〇〇	一
先限	二〇〇八〇	一

延取引 十四日

京城 賣買高
現物三等㊄四二、一〇 四二、㊄四一、七〇
九月末 四二四九一四三五

群山 賣買高
全羅三等 四二、三〇 同四等 四二、五〇

	八月中	八月末	九月中	九月末
一回	一	一	一	四一、九〇
二回	一	一	一	四一、七三
三回	一	一	一	四一、八五
四回	一	一	一	四一、八三
五回	一	一	一	四一、八三
六回	一	一	一	四一、八五

釜山 賣買高 二千一百石
穀良 四三、〇〇 神力 四三、五〇

	八月中	八月末	九月中	九月末
一回	一	一	一	四一、七六
二回	一	一	一	四一、八〇
三回	一	一	一	四一、八四
四回	一	一	一	四一、八五
五回	一	一	一	四一、八四
六回	一	一	一	四一、八六

大邱 賣買高 二萬九千五百石
穀良 四三、三〇 神力 四三、[illegible]

	八月中	八月末	九月中
一回	一	一	一
二回	一	一	一
三回	一	一	一
四回	一	一	一
五回	一	一	一
六回	一	一	一